제 11회 한일미래포럼 참가 후기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강원석

저는 고등학교 시절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우연히 학교 친구를 통해 한일미래포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일미래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고 얼마 안 돼 한일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이러한 포럼을 통하여 일본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멀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를 가지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취재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번 포럼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럼 측에서 보내준 송영버스를 타고 처음 본 사람들과 숙소인 썬레이크를 가면서 어색한 분위기속 사람들과 잘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지만, 숙소에 도착하고 바로 갖게 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서로에 대한 자기소개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일본인과 한국인 참여자들 모두 어색한 마음을 풀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각자 토론 주제별로 나눠진 팀별로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의 주제는 '재일 교포' 였습니다. 그 주제를 택한 이유는 과거 재일 교포에 대한 영화인 'Go'를 보면서 일본에서 재일 교포들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싱가포르 혼혈인 저의 친척형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싱가포르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재일교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갔었습니다.

저의 팀에서는 재일교포 분들과 일본인 분들이 모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분들의 재일교포의 대한 생각과 재일교포 분들의 본연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하면서 매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재일교포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었지만, 북한은 재일교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재일교포들은 한국과 밀접한 민단계열의 학교보다는 북한과 연관된 조총련계의 조선학교를 다녔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많은 재일교포들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북한의 지원이 줄어든 조선학교를 다니기 보다는 일본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일본에서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본으로 귀화하는 재일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재일교포들이 많이 다니는 조선학교는 북한과 관계가 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 한국에 대해 불신을 갖거나 안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교포들도 많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현대 사회 접어들면서 과거에 비해 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에서의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차별적인 인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재일교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왜곡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일 째 되는 날 필드 트립으로 갔던 이즈모신사에서는 보고 듣기만 했던 일본의 신사 문화를 실제로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필드 트립 조에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포럼에 참여했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잘했었기 때문에 신사에 대해서 직접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필드 트립을 다녀온 후 일본 측 참여자들과 한국 측 참여자들 모두 서로에 대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졌던 토론 후 모두들 피곤했지만 밤늦게 까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밤늦게까지 다음 날 있을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욱 더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일 째 되는 날 많은 팀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부터 있을 발표를 준비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서로의 언어로 번역하고 공유해가면서 더욱 더 돈독해 질 수 있었습니다. 발표 시간에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조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깊게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방송사에서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도 오셔서 일본 언론인으로서의 한일 관계의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강제징용 판결에 의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양국 입장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편견적인 시각을 갖는 것 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 후 갖는 바베큐 파티에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다른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식사를 하고 일본인 친구들과 주최 측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가면서 이번 포럼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포럼이 진행되는 시기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은 일본인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다음에 일본인 친구들과 만나게 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포럼은 끝났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 모두가 다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가 부족한 저를 도와준 저의 재일교포 팀원들 모두 너무 고맙고, 3박 4일 동안 포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집행위원분들, 다른 참여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